

Michèle Sellier

파리 5대학에서 공법학과 정치학 전공. Amien의 Maison de la Culture와 l'Académie de REIMS의 원장 역임. 현재는 국립교육연구소의 교육감, 교육연구 국제센터 Centre International d'Etudes Pédagogiques의 소장으로 재직중. 유럽 각국의 교육제도를 연구. 특히 입시제도와 입시평가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음.

본문의 내용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강연의 요약문이다.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 혹은 몇몇 나라들에서 고등학교로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미셸 셀리에

중-고등학교에서 맞아들이는 학생 수가 대량으로 증가하고, 기업 등 고용시장의 요구가 변화를 겪는 까닭에, 모든 나라들은 동일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믿을 만하고, 공정하고, 관리 가능한 시험제도를 찾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유는 시험제도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자체의 고유한 역사에 뿌리박힌 문화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교육성의 요청에 따라 장학청 l'Inspection Générale에서 다음과 같은 나라들 -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 을 대상으로 하여 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프랑스 교육제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네가지 문제점들이 주안점으로 부각되었다.

- 선별과정
- 시험의 내용
- 시험의 구성
- 시험이 수행하는 기능들

1. 선별과정

학생들의 선별은 다음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

-- 중등교육 과정 중에

- * 독일과 네덜랜드의 경우, 12세부터 계속적으로
- * 영국, 스페인, 이태리, 스웨덴, 혹은 프랑스의 경우, 14-16세 사이에 부여되는 여과장치에 의해서

-- 중등교육 과정의 마지막에 : 미국과 일본의 경우

- 대학 과정 중에 : 이태리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는 고등교육의 첫번째 단계로서, 대학에의 입학을 허용하는 선별과정임.)

2. 시험의 내용

나라에 따라서, 시험은 전반적인 학습에 비중을 두기도 하고, 혹은 학생에게 부여되거나 학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로부터 비롯되는 교육의 전문화에 비중을 두기도 한다.

과목들의 비중은 가중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당시의 중점과목들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령 영국은 3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치루게 하는데, 반면에 이태리, 스웨덴, 프랑스는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교육과목을 요구한다.

3. 시험의 구성 형태

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의 중요도에 따라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 두가지 양식의 시험을 요구함.

-- 최종 시험에서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에 따라서 : 가령 스웨덴은 내신 100퍼센트, 프랑스는 0퍼센트 (단 예외적으로, 「바칼로레아」에서 충분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한 2차 구두 시험에서는 성적표를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함).

--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선다형 테스트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논술, 요약 및 토론, 텍스트 해석하기, 혹은 일정한 대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질문들'에 답하기 등의 형태로 제시되는 기술 시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도 선다형 테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데, 단 스웨덴의 경우, 학생의 내신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차적인 기회로서 그러한 테스트가 적용됨.

* 미국과 일본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선다형 테스트를 사용하나, 가장 명망 높은 대학들은 근래에 이 제도에 의문을 표하고 재검토를 시작하고 있음.

** 문학 및 외국어 학과의 시험 구성에 관한 예들

--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출제를 교사들에게 의뢰한다.

-- 영국에서는 보수를 받는 시험 전문 기관들이 "Examining Boards"에 의해서 "A. Levels(Advanced Levels)" 시험이 구성된다.

-- DELF(불어 수학중) 및 DALF(고등 불어 수학중) : 이 자격증들은 불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시험 제도를 원하는 그 지역기관들에 의해 구성된다 (가령 알리앙스 프랑세즈, 혹은 대학).

* 평가는 다음의 사항들을 대상으로 한다 : 문체, 어학 지식, 요약의 경우 텍스트의 재구성,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사용, 텍스트의 이해, 주요 개념 추출 능력 등.

* 채점위원들은 미리 주어진 답안들에 의거 채점하며, 한 명의 대학 교수가 주재하는 시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험의 기능들

-- 소극적인, 그리고/또는 예측적인 기능 : 습득된 능력만을 평가하거나, 혹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

-- 교육체계의 조절-규제 기능 : 일정한 형태의 시험이 있음으로써, 교육기관들은 이 시험에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하게 되고, 따라서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내용과 방식들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

-- 시험은 또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사들에 관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

-- 채택된 시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교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가령 프랑스에서 처럼, 시험은 제의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1808년부터 시작된 이같은 역사적인 "기념물"을 변형시킨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결 론

프랑스에서는 '자격증 따기 사냥'에 대한 비판이 극심하다.

하지만 이 자격증들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배양코자 하는 것은 창의력과 연구 취미, 추론 도구들의 조직력, 그리고 상상력이다.

근래에 고용주들이, 단순한 학술적 지식을 넘어서, 지성의 배양과 함께 인성의 함양에 얼마만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

다. 우리로서는 16세기 몽테뉴의 다음과 같은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이었다고 확신한다 :

“아이는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피워야 하는 불이다.”

<김지영 역>